

부산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대표이사 구태고)는 1981년에 설립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의 대표 에너지 기업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가스를 부산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 서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

도시가스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도시가스는 장기사용 배관과 공급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압력저하 지역 개선 및 도시가스 배관망 최적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처럼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부산

도시가스는 자연재해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을 통해 사고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고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에도 적극적이다. 고층 건물이나 교량 아래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도시가스 배관은 드론을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부산 전역 및 지역별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상황 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 사고와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

부산도시가스는 지역사회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도시보다 빠르며, 노년층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부산도시가스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진행 중이다.



1 착한에너지학교 프로그램
2 작년 7월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한 부산도시가스 임직원들

먼저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부산 남구청과 치매안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매 노인과 독거노인 세대에 무료로 가스 타이머 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강서경찰서 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월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해 모바일과 IT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다. 수영구 관내 홀로 어르신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활동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 사진동호회 구성원들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착한에너지학교’도 부산도시가스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다. 이 활동은 부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의 안전문화체험관인 ‘SHE Center’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과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부산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도심 4개구의 전수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장·강서 등 원거리 지역의 보급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구태고 대표는 “부산도시가스는 안전관리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❶

